

29일자 한겨레신문 ‘물류창고 집단감염 뒤에도 작업복 돌려쓰는 쿠팡, 전수조사 않은 정부’ 기사에 대한 쿠팡의 입장

2020. 6. 29.

[기사내용] 집단감염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작업복, 작업화 ‘돌려쓰기’가 여전했다.

- 작업복, 작업화 돌려쓰기가 집단감염의 원인이라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현장검체검수에서도 방한복과 방한화에서 COVID19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냉동냉장창고의 ‘특수 방한복’은 저온 환경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장비로 국내 거의 모든 저온 물류센터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전문업체를 통해 이미 해당 방한복을 세탁 및 소독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 ※5월 말 이전 코로나19 방역지침에는 방한복 등 공용사용물품 관련 규정이 없었음.
- 쿠팡은 부천 신선물류센터 COVID19 확진자 발생 이후 모든 신선물류센터의 상시직 직원 전원에게 방한복, 방한화, 방한장갑까지 개별 지급하고 있으며, 일용직 직원에게도 방한장갑을 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방한복, 방한화의 경우 재사용 전 전문업체를 통해 세척과 소독하여 지급하는 프로세스를 국내 최초로 수립해 적용했습니다. 심지어 세척 및 소독한 방한복, 방한화는 바코드를 부착하여 언제 세척과 소독이 이루어졌는지 추적관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복과 작업화 돌려쓰기가 여전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기사내용] 26곳 중 12곳은 방역지침조차 수립하지 않은 상태였다.

- 쿠팡은 코로나19 초기부터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자체 방역수칙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모든 방역수칙을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있으며, COVID19 예방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개발, 도입하였고, ‘코로나19 안전감시단’을 대 규모로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특히, 6월부터 정부가 새롭게 요구한 물류센터 방역지침을 각 시설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수립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역지침조차 수립하지 않은” 쿠팡의 물류센터는 없습니다.

[기사내용] 덕평 물류센터 식당 칸막이가 종이로만 만들어졌고, 크기도 작아 침방울을 막기 어려웠다. 식당 앞에서 줄을 설 때에도 거리두기가 이뤄지지 않았다.

- 덕평 물류센터는 코로나19 초기부터 식당에 선제적으로 칸막이를 설치하였습니다. 지난 6월5일에는 해당 칸막이의 높이를 높이기 위해 새롭게 아크릴 칸막이로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식당을 순차적으로 이용하도록 조절하였고, 지그재그로 착석하도록 조치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있습니다.
 - ※ 정부 방역지침은 칸막이의 소재(종이, 아크릴 등)를 특정하지 않고 있음



[기사내용] 정부는 쿠팡 물류센터에 대해 '부실 조사'했다.

5월28일 이후 6월26일까지 쿠팡 물류센터 27곳에 대해 정부기관(산업부, 국토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으로부터 총 44회 현

장조사를 통해 철저히 점검 받은 바 있습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